

혹시 나에게도 뇌졸중이?

신경과 백종원 과장

어르신이야기



신경과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으라면 뇌졸중과 치매를 들 수 있다. 그 중 한국인의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는 뇌혈관질환 즉 뇌졸중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뜬구름처럼 손에 잡히지 않던 뇌졸중, 그 속을 살살이 파헤쳐 보자.

혹시?

뇌졸중 뇌경색



뇌졸중, 왜 생기는 걸까?

뇌졸중이라는 말은 중풍, 뇌출혈 등 여러 가지 말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의미이고, 뇌경색과 뇌출혈은 뇌졸중을 발병기전에 따라 세분한 것이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뇌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를 압박하거나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두 질환은 전산화 단층촬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CT촬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두 질환은 치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신경과에서 내과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수술과 같은 신경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국내에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 뇌졸중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증상은 크게 국소적인 증상과 전반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적인 증상으로는 일측성 마비, 감각이상, 일측성 시야장애, 한쪽 눈 시력소실, 발음장애, 언어장애, 어지러움 등이 있다.

건강한 노후...

뇌조직은 잠깐 동안의 혈액공급 장애만으로도 심한 손상을 받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응급질환이므로 증상 발생 시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비무환, 준비보다 귀한 예방은 없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치료방법 및 약제의 개발에 의해 점차 많은 환자들이 회복을 거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장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병 후 치료보다는 위험요소들을 잘 조절하여 발생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뇌졸중에 특히 위험한 요소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과거 뇌졸중 경험,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이러한 증상이 심각할 경우엔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른 치명적인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조절한다면 뇌졸중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졸중은 한번 발생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요소들을 잘 조절하고, 적절한 약제 및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여 혈전의 발생을 막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막절제술이나 혈관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동맥류나 동정맥기형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없다면 빨리 치료하라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증상의 호전을 기다려 보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뇌조직은 잠깐 동안의 혈액공급 장애만으로도 심한 손상을 받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응급질환이므로 증상 발생 시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뇌경색의 경우 빠른 치료는 생명과도 같으므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시기를 증상이 생긴 후 각각 3시간 및 6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더라도 뇌조직의 손상을 막을 수 없으며, 부작용으로 뇌출혈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뇌출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통하여 뇌손상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급성기가 지나면 앞서 기술한 이차적인 예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발생 시에는 빠른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뇌졸중을 의심할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혈전용해술 및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